

가족관련 변인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조 성 연[†] 문 미 란 정 진 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홍익심리상담연구소

본 연구는 가족의 구조적 변인(부모 학력, 직업, 경제적 수준) 및 과정적 변인(양육태도: 모-돌봄, 모-자율, 부-돌봄, 부-자율)과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울 및 경기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57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별로 가족관련 변인과 역기능적 진로사고간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가족의 구조적 변인 중에서는 모-학력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가족의 과정적 변인에서는 모든 변인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대학생의 경우는 가족의 구조적 변인은 모두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가족의 과정적 변인은 모두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역기능적 사고에 있어서 가족의 구조적 변인보다는 과정적 변인이 더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역기능적인 진로사고를 감소시켜 합리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그들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율성과 관계성의 균형을 가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며, 부모에게는 가족의 과정적 변인들을 고려한 적절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요어 : 가족의 구조적 변인, 가족의 과정적 변인, 양육태도, 역기능적인 진로사고

조성연은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문미란, 정진선은 홍익심리상담연구소에서 근무함.

[†] 교신저자 : 조 성 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원격교육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69

전화 : 02-3668-4328, E-mail : fnelin@hanmail.net

진로선택은 단지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발달 단계의 연속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특히 발달 단계상 청소년 시기가 진로발달에 중요한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담심리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savickas, 2002).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 있는 다양한 진로 변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 최근 주요 경향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 인지적 접근이다. 이는 최근 심리치료 및 상담이론에서의 인지적 접근 경향이 반영되는 것으로 진로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인지재구조화를 통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술을 학습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Mitchell & Krumboltz, 1987; 고향자, 강혜원, 2003, 재인용). 이와 관련하여 Sampson, Peterson, Lentz, Reardon, 및 Saunders(1996)는 개인이 어떻게 진로결정을 내리고 진로문제 해결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는지의 측면에서 인지적 정보처리 이론을 진로발달에 적용시켜,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s Inventory: CTI)를 개발하였다. 그리하여 진로와 관련된 혼란과 미결정을 야기하는 진로상의 역기능적 인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Saunders, Peterson, Sampson 과 Reardon(2000) 연구에서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의 주요요인으로 밝혀졌으며, 그 밖의 여러 연구에서도 역기능적 인지가 내담자의 의사결정 회피, 미결정, 무력감과 우울, 흥미저하, 진로준비활동 방해 등을 야기함이 밝혀졌다(Corbishley & Yost, 1989; Dowd, 1995; Lewis & Gilhousen, 1981;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따라서 이렇게 역기능적 사고가 진로결정 과정에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전제할 때,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탐구하여, 청소년의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요청된다

(고향자, 강혜원, 2003).

한편 진로발달은 한 개인의 내적인 변인 즉 자신의 능력, 적성, 성격과 흥미 등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회적,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 개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 중에서도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 상호간의 관계, 가정의 분위기 등을 포함한 가족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Vondracek, Lerner와 Schulenberg(1986) 등은 진로개발에 가족 맥락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는데, 가족의 영향이 직업 발달의 복합적인 면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Schulenberg, Vondrack와 Crouter(1984)는 어떻게 가족이 직업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 가족변인(가족구성, 가족형태, 그리고 가족 과정 변인)이 직업발달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가족 변인과 진로결정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아도, Lopez와 Andrews (1987)는 어떤 가족의 상호작용은 진로미결정을 유발하는 반면, 또 다른 가족의 상호작용은 효과적인 진로의사결정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즉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가족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박지영(1995)이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응집성과 진로결정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가족응집성이 높다고 지각할수록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며 직업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체계유형과 심리적 독립간의 관계를 연구한 김진희(1999)도 가족응집성과 진로결정수준은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진로관련 변인에 있어 가족 변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진로문제와 관련한 가족변인은 크게 두 가지 즉, 가족의 구조적 변인과 가족의 과정적 변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가족의 구조적 변인으로는 자녀수,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들 수 있으며, 가족의 과정적 변인으로는 가족의 상호작용, 부모의 양육방식, 관계적인 요인들, 부모의 기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 변인들 중에서도 특히 부모와 관련된 변인이 청소년의 진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있다. Kotlik와 Harrison(1989)은 가족구성원이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기술하며, 진로결정과정에 누가 영향을 주는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어머니라고 답한 것이 69%, 아버지가 59%, 조부모, 이모, 삼촌 혹은 다른 친척들이 45%, 형제자매가 38% 로 나왔다. 따라서 가족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환경이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들 중에서 가장 진로선택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모라고 한다. 또한 Basow와 Howe(1979)도 대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진로에 관해서는 부모가 가장 영향력 있는 모델임을 밝혀냈다. 한편, Hollander(1972)는 학생들의 직업적 흥미에 관한 영향력을 조사한 결과, 고등학교 시절에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며, 대학 시절에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연숙(2000)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 중에서 부모의 수용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가 다른 양육태도 변인보다 진로관련 변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지용근(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합리적이라고 지각한 아동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지각한 아동들보다 높은 진로흥미를 나타내었다. 이현숙과 조한익(2004)의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수용적이거나 자율적이라고 지각했을 때 진로미결정과 부정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이라고 지각했을 때 진로미결정과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거나 자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진로확신이 높아지고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진로미결정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숙(2000)은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 변인 중에서 부모의 수용적 태도와 자율적 태도가 다른 양육태도 변인보다 진로관련 변인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Trusty, Watts와 Erdman(1997)도 부모 개입의 예언변인을 확인했는데, 그 중 사회경제적 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긴 하지만 1% 미만의 설명력을 가졌고, 그 밖에 가족 구성, 가족 인원수, 부모 교육수준 등의 변인은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없었다.

Bell, Allen, Hauser와 O'Connor(1996)는 가족변인과 진로선택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그들 부모와 자율성과 관계성의 균형을 가질 때 더 좋은 진로와 직업을 갖게 됨을 발견했다. 또한 가족 내에서 자율성이 없을 경우 해로운 영향이 있음을 밝혔는데, 청소년 시기동안 그들 부모와의 관계(특히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이 없는 청소년은 낮은 지위의 직업에 종사한다는 것이다. Paa와 McWhirter(2000)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같은 성의 부모가 그들의 진로기대에서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했다. 즉, 소녀들은 어머니가 긍정적 피드백,

자율성의 지지, 그리고 그들의 진로결정에 대한 대화를 제공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소년들보다 더 많았고, 소년들은 그들 아버지 다음으로 어머니가 두 번째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O'Brien과 Fassinger(1993)은 경로분석을 이용하여 여고생의 진로선택을 예언했는데, 이들의 진로선택은 많은 변인에 의해 예언되는데 즉, 능력 수치, 중개 특성(수학확신성, 도구성, 진로확신성) 그리고 어머니와의 관계가 포함될 때 경로의 적합성이 더 증가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고생의 진로선택에는 어머니가 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가족의 영향, 그 중에서도 부모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진로지도할 때에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에 대한 개입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청소년들의 부모들에게 진로지도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을 제공하여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Young, Friesen과 Pearson(1988)은 그들의 연구에서 가족구성원, 특히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진로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풍부한 설명을 제공했다. Young과 그 동료들은 자녀의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부모 활동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모가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에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도구적인 지원을 해주기, 그리고 청소년 자녀들을 지켜보기 등이 가장 많이 보고되었고,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으로는 관심 보여주기, 정보, 충고, 제안, 그리고 피드백을 해주기가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또한 부모의 대인관계 활동으로는 부모가 자녀들을 돕고 보호하기, 보살피고

관리하기, 그리고 확신시키고 이해하기 등이 자녀의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주요한 부모의 활동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부모들이 종종 그들의 딸과 아들과 서로 다르게 상호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주로 아들과 상호 작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아들과 진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나누고 아들의 활동에 더 많은 흥미를 나타내며 딸의 진로발달보다는 아들의 진로발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또한 Young과 Friesen(1992)은 위의 자료를 사용하여 부모의 개입을 분석하고 청소년의 진로발달을 활성화하는 10가지의 카테고리를 범주화했는데, 이는 1) 기술 습득 2) 구체적인 가치 혹은 신념의 습득 3) 원치 않은 경험으로부터 보호 4) 독립적인 사고 혹은 활동의 증가시키기 5) 성역할 고정관념을 낮추기 6) 부모-자녀 관계의 적절함과 온건함. 7) 인간관계의 활성화 8) 성격 발달의 강화 9) 개인의 책임성의 발달 10) 부모의 관심에 우선적으로 관련되는 부모 개인적 목표달성이다. 그리고 Young과 그 동료들은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진로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 청소년의 진로관련 활동에서 서로 상호 작용하는 과정을 조사하였다. 또한 Young외(200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과 부모의 진로 대안 탐색, 흥미발견, 개인적 발달 강화,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 증진, 혹은 구체적인 진로경로 이행과 관련된 목표로 시작되는 프로젝트를 결정했으며, 이 연구에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강화하는 5가지 요인들을 발견했다. 즉 진로 대화는 부모와 청소년들의 목표를 공유하고,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공통의 목표를 성취하는 방법을 함께 확인할 때 더 효과적이다. 부가하여, 더 성공적인 프로젝트는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개인화(individuation)되어 독립된 것과 부모가 리더십의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된다.

이와같이 가족 과정 변인에 대한 연구들의 일관된 결과들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의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환경은 그들 부모와 상호적으로 존경하고 자율성이 격려되는 개방적이고 지지적인 관계 패턴과 관련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비현실적인 부모의 기대는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이론들을 살펴보면 가족 상호작용은 효과적인 진로의사결정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한다. 일반적으로 애착과 갈등에서의 독립성은 청소년들의 진로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부모의 효과적인 관계형성과 적극적인 활동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진로지도를 돕는 부모들을 위한 상담과 교육 과정에 이러한 부모들의 개입과 활동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밖에도 자녀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부모관련 변인들을 찾아내어 부모의 상담이나 교육의 과정과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진로미결정 및 진로발달에 있어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중요한 구성요소이므로(Saunders, Peterson, Sampson과 Reardon, 2000),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진로의사결정 및 진로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역기능적 진로사고 변인을 채택하였다(고향자, 김영아, 2003). 진로발달은 두 가지 상호의존적인 가족맥락 요인(가족 구조적 변인과 가족 과정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진로발달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있어서도 가족 구조적 변인과 가족 과정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관련 변인으로 가족 구조적

변인과 가족 과정적 변인을 설정하여 이들과 역기능적 진로사고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가족 구조적 변인 중에서 부모 직업수준, 부모 교육수준, 가족 경제력(한달 수입)을, 가족 과정적 변인에서는 부모 각각에 대해 돌봄과 자율성 변인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 요인의 영향은 개인 발달의 변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Vondracek, Lerner와 Schulenberg, 1986), 개인의 다른 맥락적 요인들이 진로발달과 선택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고려될 필요가 있으므로, 여러 요인들 중에서 특히 학교 급별과 성별에 따라 가족변인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급별로는 발달 연령에 따라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과 취업을 목표로 하는 대학생은 진로에 있어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진로지도에서 청소년 자신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부모에게도 적절한 상담 및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 때 어떠한 영역의 교육이나 개입이 필요한지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관련 변인(구조적 변인과 과정적 변인)과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학교 급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가족 관련 변인(구조적 변인과 과정적 변인)과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셋째, 가족 관련 변인(구조적 변인과 과정적 변인)은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대상

본 연구에서는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인문계 고등학교와 4년제 남녀공학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고등학교와 대학별로 학급별, 성별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표집하여, 총 625부의 설문지를 배포 및 회수하였다. 그 중 성의 있게 답하지 않은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557부가 분석되었는데, 이 중에는 남학생이 268명(48.1%), 여학생이 289명(51.2%)이다. 학급별 구성으로 고등학생 308명(55.3%), 대학생 249명(44.7%) 이다.

도구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역기능적 진로사고 및 인적사항을 측정하는 도구들이 사용되었다.

양육태도 측정도구(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Parker(1979)가 제작한 PBI(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과거 부모로부터 받은 양육태도를 회상하여 보고하도록 구성된 질문지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송지영(1992)이 PBI를 번안하여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를 제작하였으며,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PBI는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 두 개의 하위 변인으로 구성되어 양육태도를 평가하는데, 바람직한 양육의 결속(bonding)을 파악하거나 왜곡된 양육의 심리적, 사회적 기능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돌봄과 과보호 두 개의 하위 척도가 축으로 함께 분석될 수 있으며 별도로 분석될 수도 있다. 돌봄은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돌봄에서의 높은 점수는 정서적 따뜻함과 공감을 반영하고 낮은 점수는 정서적 냉정함과 무관심을 반영한다. 과보호는 총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보호에서의 높은 점수는 과도한 통제와 의존심을 키우는 양육태도를 가리키며 낮은 점수는 독립심과 자율성을 키워주는 양육태도를 반영한다. 각 문항들은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거의 다르다, 전혀 다르다 등 4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부의 양육태도와 모의 양육태도를 각각 따로 측정하였으며, 과보호 하위척도는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을 키워주는 양육태도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사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가 돌봄 문항은 .83, 과보호(자율) 문항은 .81로 나타났다.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 Inventory: CTI)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Sampson 등(1996)에 의해 개발된 도구를 박미진 등(2001)이 번안한 CTI(Career Thought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진로와 관련된 역기능적 사고를 측정하는 것으로 인지적 정보처리이론과 인지치료를 이론적 근거로 하여 개발되었다. CTI는 의사결정혼란(14문항), 수행불안(10문항), 외적 갈등(5문항)의 세 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기능적 사고 전체는 4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결정혼란(Decision Making Confusion) 하위척도는 의사결정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정서적 문제로 인해 진로결정을 시작하거나 유지할 능력이 부족한 정도를 말하며,

수행불안(Commitment Anxiety)하위척도는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에 관한 일반화된 불안 때문에 특정한 진로를 선택하는 결단능력이 부족한 정도를 반영한다. 그리고 외적갈등(External Conflict)하위척도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과 타인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부족한 정도를 반영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검사의 신뢰도가 Cronbach의 α 계수가 의사결정혼란 문항은 .89, 수행불안 문항은 .88, 외적갈등 문항은 .68 그리고 진로의식 전체는 .96으로 나타났다.

인적사항

인적사항과 관련된 문항은 성별, 학년, 부모의 직업, 부모의 학력, 한달 수입 등이었다.

검사 실시 및 분석 방법

검사는 해당 학교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

나 교사가 집단으로 지시사항을 설명하고 실시하였으며, 2004년 4월 2일~7월 5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수거된 자료는 SPSS/WIN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인 각 변인들의 기술적 통계자료(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차이분석, 상관분석, 단계적(stepwise) 방법을 적용한 회귀분석을 하였다.

결 과

부모양육태도와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성별, 학교급별 차이분석

부모양육태도가 성별, 학교 급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 본 결과, 표 1, 2, 3에 나타나 있듯이 성별로는 고등학생, 대학생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에 모-돌봄($t=-2.746, p<.01$), 모-자율($t=-2.781, p<.01$), 부-돌봄($t=-2.553, p<.05$), 그리고 부-자율($t=-3.099, p<.01$)의 모든 하위차원에

표 1. 부모양육태도의 성별 차이(고등학생)

부모양육태도	변인	n	M	SD	t	P
모-돌봄	남	161	37.39	7.03	-1.103	.779
	여	145	38.28	6.97		
모-자율	남	161	38.39	7.30	-.838	.105
	여	145	39.05	6.45		
부-돌봄	남	161	35.09	6.68	-.436	.060
	여	145	35.45	7.84		
부-자율	남	161	38.66	6.59	.252	.476
	여	145	38.46	7.00		

표 2. 부모양육태도의 성별 차이(대학생)

부모양육태도	변인	<i>n</i>	<i>M</i>	<i>SD</i>	<i>t</i>	<i>P</i>
모-돌봄	남	105	38.69	6.06	-1.540	.809
	여	144	39.90	6.20		
모-자율	남	105	40.46	6.87	.329	.325
	여	144	40.18	6.69		
부-돌봄	남	105	36.25	7.11	-1.080	.513
	여	144	37.23	7.02		
부-자율	남	105	40.77	7.40	.759	.247
	여	144	40.09	6.67		

표 3. 부모양육태도의 학교 급별 차이

	변인	<i>n</i>	<i>M</i>	<i>SD</i>	<i>t</i>	<i>P</i>
모-돌봄	고등학생	308	37.84	6.99	-2.746**	.006
	대학생	249	39.39	6.16		
모-자율	고등학생	308	38.67	6.91	-2.781**	.006
	대학생	249	40.30	6.75		
부-돌봄	고등학생	308	35.26	7.22	-2.553*	.011
	대학생	249	36.82	7.06		
부-자율	고등학생	308	38.56	6.76	-3.099**	.002
	대학생	249	40.37	6.98		

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는 성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성별, 학교 급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 5, 6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에 있어서는 부모양육태도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와 대학생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으며, 학교 급별에 있어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에 의사결정혼란($t=5.731, p<.01$), 수행불안($t=4.114, p<.01$), 외적갈등($t=3.926, p<.01$) 그리고 역기능적 진로사고 전체($t=5.303, p<.01$)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있어서는 성별로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성별차이(고등학생)

진로사과	변인	n	M	SD	t	P
의사결정혼란	남	161	14.40	8.28	-1.135	.404
	여	145	14.53	9.13		
수행불안	남	161	13.00	6.61	-1.712	.555
	여	145	14.33	6.90		
외적갈등	남	161	5.85	3.16	-.917	.630
	여	145	6.18	3.22		
역기능적 진로사과 전체	남	161	33.26	16.49	-.931	.809
	여	145	35.05	17.18		

표 5.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성별차이(대학생)

진로사과	변인	n	M	SD	t	P
의사결정혼란	남	105	12.15	7.22	3.093	.356
	여	144	9.13	7.87		
수행불안	남	105	11.87	5.78	1.075	.484
	여	144	11.04	6.22		
외적갈등	남	105	5.50	2.39	2.507	.382
	여	144	4.69	2.60		
역기능적 진로사과 전체	남	105	29.53	13.87	2.458	.178
	여	144	24.86	15.42		

표 6.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학교 급별 차이

	변인	n	M	SD	t	P
의사결정혼란	고등학생	308	14.44	8.67	5.731**	.000
	대학생	249	10.40	7.73		
수행불안	고등학생	308	13.63	6.78	4.114**	.000
	대학생	249	11.39	6.04		
외적갈등	고등학생	308	5.99	3.19	3.926**	.000
	대학생	249	5.03	2.54		
역기능적 진로사과 전체	고등학생	308	34.06	16.81	5.303**	.000
	대학생	249	26.83	14.93		

** $p < .01$

가족의 구조적 변인 및 과정적 변인과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앞서 각 변인에서 학교 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나누어 각각 상관

표 7. 가족의 구조적 변인과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상관

구 분	가족의 구조적 변인					
	부-직업	모-직업	부-학력	모-학력	한달수입	
고등학생	의사결정혼란	-.009	.019	-.040	-.179**	.033
	수행불안	.075	.010	-.034	-.169**	.003
	외적갈등	.076	-.002	-.094	-.166**	.052
	역기능적 진로사과전체	.040	.014	-.052	-.192**	.028
대학생	의사결정혼란	.086	-.045	-.027	.030	-.107
	수행불안	.107	-.095	.042	.067	-.038
	외적갈등	.047	-.025	-.049	-.056	-.095
	역기능적 진로사과 전체	.096	-.066	-.006	.033	-.087

** $p < .01$

표 8. 가족의 과정적 변인(부모양육태도)과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상관

구 분	가족의 과정적 변인(부모양육태도)				
	모-돌봄	모-자율	부-돌봄	부-자율	
고등학생	의사결정혼란	-.273**	-.251**	-.332**	-.253**
	수행불안	-.168**	-.122*	-.219**	-.149**
	외적갈등	-.191**	-.237**	-.189**	-.136*
	역기능적 진로사과 전체	-.245**	-.223**	-.295**	-.216**
대학생	의사결정혼란	-.341**	-.245**	-.317**	-.269**
	수행불안	-.327**	-.238**	-.295**	-.264**
	외적갈등	-.349**	-.319**	-.366**	-.354**
	역기능적 진로사과 전체	-.368**	-.277**	-.346**	-.306**

* $p < .05$ ** $p < .01$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는 표 7와 표 8에 각각 제시되어 있다. 우선 가족의 구조적 변인인 부-직업, 모-직업, 부-학력, 모-학력, 한달 수입과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모-학력과 의사결정혼란은 $-.179(p<.01)$, 수행불안은 $-.169(p<.01)$, 외적갈등은 $-.166(p<.01)$ 의 상관이 있었으며, 역기능적 진로사과 전체와는 $-.192(p<.01)$ 의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모-학력 변인은 역기능적 진로사과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가족의 구조적 변인들과 역기능적 진로사과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족의 과정적 변인인 부모양육태도와 역기능적 진로사과 간에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모든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우선 고등학생의 경우, 의사결정혼란과 부-돌봄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모-돌봄, 부-자율, 모-자율 순으로 높았다. 수행불안은 부-돌봄과 상관이 가장 높았고, 외적갈등은 모-자율과 상관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역기능적 사고 전체와 부-돌봄과 상관이 가장 높았고 모-돌봄, 모-자율, 부-자율 순으로 상관을 나타내었다.

대학생의 경우는 고등학생보다 전반적으로 과정적 변인인 부모양육태도(돌봄과 자율성)과 역기능적 진로사과(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와의 유의한 상관이 높았다. 의사결정혼란과 모-돌봄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부-돌봄, 부-자율, 모-자율 순으로 높았다. 수행불안은 모-돌봄과의 상관이 가장 높고, 부-돌봄, 부-자율, 모-자율 순으로 상관이 있었다. 외적갈등과 역기능적 진로사과와는 전반적으로 상관이 높았는데 부-돌봄, 모-돌봄은, 모-자율, 부-자율 순으로 높았다. 역기능적 사고 전체와 모-돌봄과의 상관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돌봄,

부-자율, 모-자율의 순으로 전반적으로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가족의 구조적 변인 및 과정적 변인의 역기능적 진로사과에 대한 회귀분석

가족의 구조적 변인 및 과정적 변인이 역기능적 진로사과에 대하여 가지는 설명력과 그 상대적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가족의 구조적 변인과 과정적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역기능적 진로사과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고등학생, 대학생별로 단계적 방법(stepwise method)을 적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의사결정혼란에는 부-돌봄, 모-자율, 모-학력이 함께 작용하여 14.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이 중 부-돌봄이 갖는 설명력이 11.0%, 모-자율과 모-학력이 갖는 설명력은 각각 1.8%로 부-돌봄이 의사결정혼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모-돌봄이 11.6%, 부-자율이 1.2%의 설명력을 보여 전체 13.8%로 의사결정혼란의 설명력을 보였다. 수행불안은 고등학생의 경우, 부-돌봄과 모-학력이 6.7%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대학생의 경우, 모-돌봄, 부-자율이 12.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외적갈등은 고등학생의 경우 모-자율과 모-학력이 8.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모-자율이 5.6%의 설명력을 모-학력이 2.5%의 설명력을 보였다. 대학생의 경우 부-돌봄이 13.4%의 설명력을 보였고 이에 모-자율이 더해져 전체 18.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사고 전체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부-돌봄이 8.7%, 모-학력이 2.2% 그리고 모-자율이 1.5%의 설명력을 보여 전체 12.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생은 모-돌봄이 13.6%의 설명력을

표 9. 가족의 구조적 변인 및 과정적 변인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대한 회귀분석

종속변인	구분	설명변인	r	R ²	R ² cb	F	β	t
의사결정 혼란	고등학생	부-돌봄	.332	.110	.107	37.840	-.255	-4.399**
		모-자율	.358	.128	.122	22.420	-.148	-2.581**
		모-학력	.382	.146	.131	17.266	-.134	-2.489*
	대학생	모-돌봄	.341	.116	.113	32.503	-.279	-4.335**
		부-자율	.371	.138	.131	19.684	-.160	-2.487*
		모-자율	.359	.129	.122	18.188	-.161	-2.492*
수행불안	고등학생	부-돌봄	.219	.048	.045	15.372	-.197	-3.525**
		모-학력	.258	.067	.061	10.907	-.139	-2.486*
		모-돌봄	.327	.107	.103	29.541	-.264	-4.085**
	대학생	부-자율	.359	.129	.122	18.188	-.161	-2.492*
		모-자율	.237	.056	.053	18.139	-.230	-4.183**
		모-학력	.283	.080	.074	13.293	-.156	-2.834**
외적갈등	고등학생	부-돌봄	.366	.134	.131	38.249	-.297	-4.904**
		모-자율	.426	.182	.175	27.295	-.229	-3.779**
		부-돌봄	.295	.087	.084	29.217	-.221	-3.773**
	대학생	모-학력	.331	.109	.103	18.703	-.153	-2.808**
		모-자율	.353	.124	.116	14.380	-.133	-2.284**
		모-돌봄	.368	.136	.132	38.803	-.294	-4.647**
역기능적 진로사고 전체	대학생	부-자율	.409	.167	.160	24.649	-.192	-3.034**

*p<.05 **p<.01

가지고 있었으며 여기에 부-자율이 3.1%의 설명력을 더하여 전체 16.7%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역기능적 사고 전체와 그 하위 차원에 있어서 가족의 구조적 변인인 부모의 직업, 학력, 한달 수입보다는 과정적 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가 더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구조적 변인(부모 직업 수준, 부모 교육수준, 가족 경제력) 및 가족의 과정적 변인(돌봄과 자율성)과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을 포함한 역기능적 진로사고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양육태도가 성별, 학교 급별(고등학생-대학생)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성별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학교 급별로는 고등학

생과 대학생 간에 가족 과정적 변인인 모-돌봄, 모-자율, 부-돌봄, 그리고 부-자율의 모든 하위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모든 항목에서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점수가 낮았다. 이는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보다 그들 부모의 양육태도가 돌봄과 자율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부모양육태도의 지각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간의 발달 연령에서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둘째,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성별, 학교 급별(고등학생-대학생)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성별에 있어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교 급별(고등학생-대학생)에 있어서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간에 의사결정 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 역기능적 진로사과 전체에 대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의사결정 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을 포함한 역기능적 사과 전체 항목에서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생이 대학생보다 의사결정 혼란(Decision Making Confusion), 즉 의사결정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정서적 문제로 인해 진로결정을 시작하거나 유지할 능력이 부족하고, 수행불안(Commitment Anxiety), 즉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에 관한 일반화된 불안 때문에 특정한 진로를 선택하는 판단능력이 부족하며, 외적갈등(External Conflict), 즉 자신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과 타인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에 입학하여 전공을 선택하여 어느 정도 진로가 결정되어진 대학생들과 달리, 고등학교 시기는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입시생이나 취업준비생 모두 진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

우가 많고 또한 자신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되지 않은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역기능적 진로사과를 많이 할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진로사과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가족의 구조적 변인(부모 직업수준, 부모 교육수준, 가족 경제력)이 역기능적 진로사과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 간 상관분석을 하였다. 가족의 구조적 변인인 부-직업, 모-직업, 부-학력, 모-학력, 한달 수입과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모-학력과 역기능적 진로사과의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어머니의 학력 변인은 의사결정 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을 포함한 역기능적 진로사과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역기능적 진로사과가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이 의사결정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문제로 인해 진로결정을 시작하거나 유지할 능력을 도모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결과에 관한 일반화된 불안을 줄이고 특정한 진로를 선택하는 판단능력을 높이며, 자신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과 타인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능력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어머니의 학력 자체가 자녀의 진로사과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어머니의 학력이 어머니의 합리적인 사고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높으며 이것이 다시 자녀들의 진로사과와 진로의 사결정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을 할 때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부모 특히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진로지도를 도울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고등학생들이 좀 더 현명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가족의 구조적 변인들과 역기능적 진로사고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즉, 대학생들은 가족의 구조적 변인인 부모 직업수준, 부모 교육수준, 가족 경제력과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 역기능적 사고 전체 항목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가족의 과정적 변인인 부모양육태도(돌봄과 자율성)와 역기능적 진로사고(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 간에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가족과정 변인과 진로사고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의사결정혼란 항목과 역기능적 진로사고 전체 항목에서 아버지의 돌봄 항목이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생의 경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애정과 수용을 경험할수록 의사결정 혼란이 낮고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적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시기 자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애정과 수용이 자녀의 진로의사결정과 합리적인 진로사고를 높이는 것과 유의미하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는 고등학생보다 전반적으로 과정적 변인인 부모양육태도(돌봄과 자율성)와 역기능적 진로사고(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와의 상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왔다. 즉 대학생의 경우, 청소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애정과 수용을 경험할수록 전반적으로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적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아버지의 자율성과 관련된 양육태도가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학생의 경우도 부모와의 애정과 수용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면서, 그 다음으로 아버지의 자율성이 높은 양육태도가 역기능적인 진로사고를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가족 구조적 변인(부모 직업수준, 부모 교육수준, 가족 경제력)과 가족 과정적 변인(돌봄과 자율성)이 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을 포함한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대하여 가지는 설명력과 그 상대적 중요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가족의 구조적 변인과 과정적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고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고등학생, 대학생별로 단계적 방법(stepwise method)을 적용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 의사결정혼란에는 부-돌봄이 갖는 설명력이 11.0%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자율, 모-학력이 함께 작용하여 14.6%의 설명력을 보였다. 대학생의 경우 모-돌봄이 11.6%로 가장 많았고 부-자율이 1.2%의 설명력을 보여 전체 13.8%로 의사결정혼란의 설명력을 보였다. 수행불안은 고등학생의 경우, 부-돌봄과 모-학력이 6.7%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대학생의 경우, 모-돌봄, 부-자율이 12.9%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외적갈등은 고등학생의 경우 모-자율과 모-학력이 8.0%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며, 대학생의 경우 부-돌봄이 13.4%의 설명력을 보였고 이에 모-자율이 더해져 전체 18.2%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기능적 사고 전체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부-돌봄이 8.7%, 모-학력이 2.2% 그리고 모-자율이 1.5%의 설명력을 보여 전체 12.4%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대학생은 모-돌봄이 13.6%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여기에 부-자율이 3.1%의 설명력을 더하여 전체 16.7%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역기능적 사고 전체와 그 하위 차원에 있어서 가족의 구조적 변인인 부모의 직업, 학력, 한 달 수입보다는 가족 과정적 변인인 부모의 양육태도(돌봄과 자율성)가 더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Trusty, watts와 Erdman(1997)의 부모 관련 예언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긴 하지만 1% 미만의 설명력을 가졌고, 그 밖에 가족 구성, 가족 인원수, 부모 교육수준 등의 변인은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없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즉, 자녀의 진로발달 및 역기능적 진로사고(의사결정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와 부모의 사회경제적 계급 등의 구조적 변인과의 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진로문제와 관련한 가족변인은 크게 두 가지 즉, 가족의 구조적 변인과 가족의 과정적 변인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가족의 구조적 변인으로는 자녀수,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들 수 있으며, 가족의 과정적 변인으로는 가족의 상호작용, 부모의 양육방식, 관계적인 요인들, 부모의 기대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가족 변인들 중에서도 특히 부모와 관련된 변인이 청소년의 진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가족 구조적 변인(부모 직업수준, 부모 교육수준, 가족 경제력)보다는 가족 과정적 변인(돌봄과 자율성)이 의사결정, 수행불안, 외적갈등과 관련된 진로사고에 더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또한 Bell, Allen, Hauser와 O'Connor(1996)는 가족변인과 진로선택 관련성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그들 부모와 자율성과 관계성의 균형을 가질 때 더 좋은 진로와 직업을 갖게 된다고 했던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가족과정변인인 자율

성과 관계성을 부모와 청소년들의 관계에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부모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계획을 지원하고자 하는 욕구를 많이 표현하기 때문에, 상담자들은 부모들에게 그들 자녀들이 보다 나은 진로 성과들을 갖도록 부모들의 효과적인 개입에 대한 제안들을 제공하고 필요한 발달적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청소년들과의 관계에서 지지와 정보제공 그리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격려할 때 진로발달이 촉진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Young, Friesen & Dillabough, 1991). 상담자들은 부모들에게 진로발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요인들을 알려주는 심리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그들 자녀들의 진로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아울러, 개인과 가족에 대한 상담을 위한 합의점들도 있다. 최근 질적 연구들에서 가족들은 분명하게 개인의 진로선택과 진로의사결정에 대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Schulthesis, Kress, Manzi & Glasscock, 2001), 청소년들이 부모의 영향들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 진로상담에서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진로상담자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 부모와의 관계를 탐색하고 그리고 갈등정도를 규명해야 한다. 부모와의 관계가 진로발달과 진로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간의 관계성을 증진하는 상담목표를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청소년의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으로 구조적 변인보다 과정적 변인이 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가족 과정 변인에 대한 분명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하지 못한 데에 있다. 실제로,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가족 과정 변인의 영향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가족 역동과 같은 용어 정의가 어렵고 많은 가족 과정 용어에 대한 의견 일치가 어렵기 때문이다. Schultheiss(2001)과 Phillips(2001)의 연구 결과들에서는 관계적 맥락들이 복잡한 차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구조적 변인으로 부모 직업수준, 부모 교육수준, 가족 경제력을 선택하고 가족의 과정적 변인으로 부모의 돌봄과 자율성을 선택하였으나, 가족 구조변인과 과정 변인으로 좀 더 다양한 변인들을 선택하여 그 상호작용의 영향과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여러 연구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은 가족의 영향, 그 중에서도 부모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 변인들 중에서도 가족 구조적 변인(부모 직업수준, 부모 교육수준, 가족 경제력)보다는 가족 과정적 변인(돌봄과 자율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모의 과정적 변인들에 대한 상담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그들 부모들에게 청소년들이 효과적인 진로 선택을 하도록 부모들의 개입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부모들이 가족 과정적 변인인 관계성과 자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지지와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격려할 때 진로발달이 촉진

되므로 상담자들은 부모들에게 중요한 관계 요소들을 알려주는 심리교육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그들 자녀들의 진로발달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할 때는 부모의 영향들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을 탐색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진로상담자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 부모와의 관계를 탐색하고 그리고 갈등정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계적 영향력들을 자각하는 것이 진로상담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또한 관계적 영향력들이 단차원적 혹은 단순함과 관계성의 복잡성과 다면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Flum, 2001b). 따라서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영향력들의 다면적인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후속연구로는 자녀의 진로지도를 도울 수 있는 부모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개발과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이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부모의 어떠한 활동이 자녀의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낮추고 효과적인 진로발달과 직업선택을 돕는지 분석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적절한 진로개입 활동의 내용으로 구성된 부모대상 진로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향자, 강혜원 (2003). 부모와의 심리적 독립과

-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77-294.
- 고향자, 김영아 (2003). 대학생 진로상담에서 인지적 정보처리접근의 유용성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383-402.
- 김은진 (2001). 부모에 대한 심리적 독립과 애착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애 (1998). 고등학생의 심리적 분리와 부모에 대한 대인거리 및 진로성숙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진희 (1999).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의 특성과 심리적 독립감 및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미진, 최인화, 이재창 (2001).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25-146.
- 박지영 (1995). 인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진로의사결정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 검사(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경정신의학, 31(5), 979-991.
- 이연숙 (200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존중감 및 진로결정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 최인화, 박미진 (2002).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01-414.
- 이현숙, 조한익 (2004).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성취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89-105.
- 지용근 (2004). 성역할정체감과 부모양육태도가 초등학생의 진로흥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71-88.
- Basow, S. A., & Howe, K. G. (1979). Model influence on career choice of college students.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7(3), 239-243.
- Bell, K. L., Allen, J. P., Hauser, S. T., & O'Connor, T. G. (1996). Family factors and young adult transitions: Educational attainment and occupational prestige. In J. A. Graber & Brooks Gunn(Eds.). *Transitions through adolescence: Interpersonal domains and context*(pp. 345-366).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orbishley, M. A., & Yost, E. B. (1989). The effects of group and individual vocational counseling on career indecision and personal indecisiven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7, 39-42.
- Dowd, E. T. (1995). Cognitive career assessment: Concepts and applicat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3, 1-20.
- Flum, H. (2001b). Relational dimensions in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9, 1-16.
- Hollander, J. L. (1972). *Making vocational choice: A theory of vocational personality and work environment*(2nd ed.). Odessa, FL: Psychology Assessment Resources.
- Kotrlík, J. W., & Harrison, B. C. (1989). Career decision patterns of high school seniors Louisiana.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14, 47-65.
- Mitchell, L. K., & Krumboltz, J. D. (1987). The effects of cognitive restructuring and decision making training on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 171-174.
- Lewis, R. A., & Gilhousen, M. R. (1981). Myths of career development: A cognitive approach to vocational counseling. *The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 296-299.
- Lopez, F. G., & Andrews, S. (1987). Career indecision: A family systems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5, 304-307.
- O'Brien, K. M., & Fassinger, R. E. (1993). A causal mode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 456-469.
- Paa, H. K., & McWhirter, E. H. (2000). Perceived influences on high school students' current career expectations.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9, 29-44.
- Phillips, S. D., Christopher-Sisk, E. K., & Gravino, K. L. (2001). Making career decisions in a relational context.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 193-213.
- Sampson, J. P. Jr., Peterson, G. W., Lentz, J. G., Reardon, R. C., & Saunders, D. E. (1996). *Career Thought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aunders, D. E., Peterson, G. W., Sampson, J. P. Jr., & Reardon, R. C. (2000). Relation of depression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o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6, 288-298.
- Savickas, M. L. (2002). Career construction: A developmental theory of vocational behavior. In D. Brown & associates(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4th ed., pp. 149-205). San Francisco: Jossey-Bass.
- Schulenberg, J. E., Vondrack, F. W., & Crouter, A. C. (1984). The influence of the family on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6, 129-143.
- Schulthesis, D. E. P., Kress, H. M., Manzi, A. J., & Glasscock, J. M. J. (2001). Relational influences in career development: A qualitative inquir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9, 214-239.
- Trusty, J., Watts, R. E., & Erdman, P. (1997). Predictors of parents' involvement in their teen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23, 189-201.
- Vondrack, F. W., Lerner R. M., & Schulenberg, J. M. (1986). *Career development: A life span approach*.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Young, R. A., & Friesen, J. D. (1992). The intentions of parents in influencing the career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0, 198-207.
- Young, R. A., Friesen, J. D., & Dillabough, J. M. (1991). Personal constructions of family influence related to career development. *Canadian Journal of counseling*, 25, 183-190.
- Young, R. A., Friesen, J. D., & Pearson, H. M. (1988). Activities and interpersonal relations as dimensions of behavior in the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s. *Youth and Society*, 20, 29-45.

원 고 접 수 일 : 2004. 11.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5. 1. 19
계 재 결 정 일 : 2005. 2. 3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Related Variables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Sung-Yeun Cho

Mi-Ran Moon

Jin-Sun Jung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Hongik Counseling Center

This study explor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tructure variables(education level of parents, occupational status of parents, family economic status), family process variables(parents' rearing attitude)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he objects of the study were 557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area. The results are follows: For high school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education level of mother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and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all family process variables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For college students,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ll family structure variables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and there were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between all family process variables and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Finally, family process variables had significant effects on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but family structure variables had little significant effects on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 Thus this study suggests that adolescents' career counseling program will have to be built up with regard to these variables.

Key Words : family structure variables, family process variables, parents' rearing attitude, dysfunctional career Thinking